

[31차 두산아트스쿨: 미술] 동아시아 3국의 거장들 (정윤아)

10/26 4강. 일본 현대미술의 선구자, 쿠사마 야요이

강의 개요

이번 강의에서는 끊임없는 창작력과 예술에 대한 식지 않는 열정으로 전 세계의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 일본 현대미술의 거장, 쿠사마 야요이(草間 彌生, 1929-)의 흥미로운 예술 세계를 살펴본다. 인피니티 넷(Infinity Net), 호박, 꽃, 인물화 등 다채로운 주제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선보여 전 세계 미술품 소장가들은 물론, 루이비통 같은 패션 브랜드마저 구애의 손을 내밀게 한 그녀의 매력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찰해 본다.

1) 어린 시절의 불행을 딛고 뉴욕으로

쿠사마가 시애틀을 거쳐 뉴욕에 정착한 것은 1958 년, 방년 스물일곱의 나이였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일본으로부터의 탈출을 각고의 노력 끝에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녀는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했지만 늘 불행했다. 아버지의 끝없는 외도와 이에 분노한 어머니의 폭력적 언행과 학대가 끊이지 않았다. 방년의 나이가 되서는 화가가 되려는 꿈을 목살당한 채, 권력가 집안과의 결혼을 종용 당했다.

그러나 자신 속에 잠재된 창조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쿠사마는 미국의 여류 화가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1887-1986)의 격려에 힘입어 미국행을 감행한다. 미국 이주를 통해 물리적, 심리적으로 숨 막힐 듯한 강압적인 집안 환경에서 벗어나자 그녀의 억압됐던 창조성이 폭발적으로 분출됐다. 그 덕분에 뉴욕에 정착한 지 1 년 만인 1959 년, 그물과 점 패턴이 무수히 반복된 그림을 발표했을 때 뉴욕 미술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첫 개인전을 통해서 까다로운 뉴욕 미술계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이다.

2008 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최고가를 기록했던 작품 <끝없는 그물>(Interminable Net #3, 1959) 역시 당시 개인전에서 발표한 작품 중 하나였다. 이 전시는 그야말로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미술계를 장악한 추상표현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술을 창조하고자 했던 뉴욕의 젊은 미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줬기 때문이다. 일례로 오늘날 미니멀리즘(Minimalism)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도널드 저드(Donald Judd, 1928-1994)는 이 전시를 극찬하면서 쿠사마의 조수를 자처하기까지 했다.

2) 뉴욕 젊은 예술가들의 영감이 되다

도널드 저드가 솜으로 속을 채우며 조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연작 <축적>(Accumulation)의 최초 버전은 1962 년에 발표됐다. 솜을 채워 넣은 수백 개의 남근 형태 형겅 조각으로 1 인용 소파 전체를 감싼 작품이다.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작품이 아닐 수 없다. 남근을 연상시키는 파격적인 형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최초의 부드러운 형겅 조각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대리석이나 청동 등 조각은 딱딱하다는 서양의 전통 관념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게다가 일상용품에 조각을 더했으니 일종의 신개념 설치미술이다.

대부분의 서양미술사 책들은 햄버거나 샌드위치 같은 일상 음식을 대형 사이즈의 형겅 조각으로 제작한 '부드러운 조각'(soft sculpture)을 최초로 선보인 예술가로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 1929-2022)를 소개하지만 사실 진짜 선구자는 쿠사마였다. 항공우편(airmail) 스티커를 반복적으로 붙여 캔버스 전체를 채운 작품을 발표한 것도 이즈음이다. 이 작품은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에게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테면 코카콜라병 이미지를 실크스크린 기법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찍어서 캔버스 전체를 채운 <녹색 코카콜라병들>(Green Coca-Cola Bottles, 1962) 같은 작품은 쿠사마의 항공우편과의 분명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정작 '반복의 미학'으로 유명해진 것은 쿠사마가 아니라 워홀이었다. 이후 워홀은 미국 팝아트의 선구자로 승승장구했다.

1965 년에 처음으로 선보인 <무한 거울의 방>(Infinity Mirror Room) 연작도 많은 뉴욕의 동료 예술가에게 큰 영감을 줬다. 이 작품 역시 평생 지속된 '무한'에 대한 쿠사마의 강박적, 편집증적 집착을 표현한 작품이다. <무한 그물> 회화 연작에서 보여준 반복적 패턴을 유리구슬이나 거울 등을 이용해 3 차원 공간으로 확대했다. 일종의 만화경 같은 환영이 실제 3 차원 공간으로 옮겨진 듯한 환상적인 공간으로, 마치 무한대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새로운 인지 경험을 제공하는 흥미로운 설치 작품이다.

3) 다시 일본으로

쿠사마는 1960 년대에 히피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과격한 누드 퍼포먼스를 통해 베트남전쟁 참전 반대, 동성애 인권보호운동 등 사회운동에 적극 앞장서면서 미술계 중심에서 점차 벗어난다. 그녀의 누드 행위예술 역시 다음 세대 미국 페미니즘 여성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줬지만 자신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어지는 불평등에 좌절을 견디지 못하고 1973 년, 쿠사마는 결국 일본 귀국길에 오른다. 우울증과 강박증이 한층 심각해지면서 1977 년에는 자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지경에 이른다. 한동안 미술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소설과 시를 쓰면서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오랜 휴지기를 거쳐 다시 미술 작업을 시작한 그녀가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93 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일본관 대표 미술가로 참여하면서부터였다. 자신을 상징하는 점 무늬가 입혀진 호박 조각으로 대히트를 친 것이다. 이처럼 60 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예술가로서 빛을 보기 시작하여, 90 세를 훌쩍 넘긴 고령에도 현재 세계 유수 미술관에서 전시를 가지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